



陸鍾澈

(漢陽大学校 工科大学 原子力工学科 教授(工博)
国際放射線 防禦学会 (IRPA) 運営常任理事)

火水(水火)란 무엇인가?

하늘에는 日月과 火水木金土星이 있고 땅에

는 이와 같은 순서로 일주일이 있고 日月의 運行에서 曆法이 생긴 것은 모두 잘 안다. 「易」자도 실은「日」「月」자의 조합인 것이며 두루 바뀐다는 뜻도 된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로 볼 때 日月 이외에 五星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땅에서나 우리들 인체에서나 이 五行이 있으며 여기서는 主로 水火에 대한 말만 하기로 한다. 옛부터 소리에는 五聲이 있으며 宮(음) 商(아) 角(어) 徵(이) 羽(우)라 하며 우는 水, 이는 火聲이고 「우」는 咽喉音, 「이」는 舌音이다. 또한 訓民正音으로는 「o」이 되어 「으」「ㅎ」도 되고 水(물)의 상징인 「o」이며 火인 舌音은 ㄴ ㄷ(ㄹ) ㅌ이나 初聲十七字의 基本音은 ㄱ(木), ㄴ(火), ㅁ(土), ㅅ(金), ㅇ(水)이니 火는 ㄴ, 水는 ㅇ이 그 기본음이 됨을 알 수 있다. 계절의 四時로는 火가 夏, 水가 冬節에 해당하고 方位인 四方으로는 水가 北, 火가 南에 해당하며 人体의 五臟으로는 火가 심장, 水가 신장에 해당하고 人倫도덕의 五常의 仁義礼智信에서 火는 礼, 水는 智에 해당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70%가 水고 지구내부에는 火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들 인체도 水分이 약 70%나 된다고 본다. 병으로 탈수증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있다. 원자과학에서도 "Water Drop Model" (水滴모형)이라하여 원자내의 각핵자간의 구속력 (Binding Energy)를 계산할 때 적용하지 않는가. 「o」은 球型이며 最小의 부피임도 우리들은 잘 알고 있고 빗방울, 물방울이라고 하며 수학에서나 원자이론에서나 구면기하학적 이론이 기본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는 모든 천체가 구형인 것에서 기인되며 우리 인체 각부위의 끝도 구형으로 둉글다. 이뿐이랴! 오이, 참외, 수박, 가지, 야구공, 렉비, 축구공, 탁구공 등 둉글지 아니한 것이 없고 이는 대자연의 씹리이니 우리들 인격도 둉글게 원만해야 함을 교시해주고 있음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훈민정음에서도 「o」이 初聲에서 第一 먼저 나옴은 지극히 과학적이고 철학적이 아니겠는가.

火는 舌音이고 「느」이 기본음이고 여기서「르」도 되며 「르」발음때 혀가 꼬부라져야 하고「불」기운과 같이 꼬불꼬불 상승함을 우리들은 하나의 예인 촛불에서도 볼수 있다. 周易乾卦에「水流濕하며 火就燥하며」라고 되어 있고 正易에도 「水性은就下하고 火氣는 炎上한다」라고하여 水火의 성질을 근본적으로 표현하셨고 東洋에서 우리의 수리철학에서는 一六 壬癸水는位北하고 二七 丙丁火는宮南한다 라고 하셨으니 水는北, 火는南인 것을 더울 확증해 주고 있다. 여기서 壬癸는 天干인 甲乙丙丁戊己庚壬癸의 十干의 끝이고 天一壬水라하여 하늘에서는 맨먼저 数로서는 一이 되는壬, 北이 되는壬이되고 이 一은 하나에서 五까지의 陽數의 시초일 뿐만 아니라 하나가 전체 통체의 意味도 포함하고 있으니 「하나님」이라 함도 당연하리라고 본다. 반대로 六(6)서부터 陰의 시작이요 陰數의 시초이니 땅(陰)에서는 癸水가 되여 地六癸水라고도 하며 天七은 丙火, 地二는 丁火라고 하여 二七은 丙丁火라고 부른다. 이런 명명(命名)은 우리나라 고유철학이며 성현의 말씀중에서 극히 일부로서 水火에 관계되는 몇개의 용어를 부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水(물) 火(불)의 뜻

論語에 仁者는 樂山, 仁者는 如山이요, 知者는 樂水, 知者는 如水라는 말씀이 있다. 역시 지식은 물과 같이 담담하고 우리들을 윤택하게 함이 마치 식물을水分으로 기르는 것 같고 知識이 많을 수록 每事에 不惑하고 시대에 적응할 수 있고 우리들 삶에 절대로 필요로 하나 태양(日)과 같이 不變의 빛과 열을 주는 참다운 지식인 「智」가 필요하고 善智識이라야 하겠고 따라서 남을 教化 시킬 수 있으며 德을 쌓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물은 仁者와 비유되니 온유하고 仁慈하여 慈母와 같으며 胎兒가 十個月동안 母体의 음수에 쌓여 있었음으로 水氣의 중요성을 알 수 있으며 우리들이 일상생활함에 沐浴湯물에 들어가서 안락감, 평온함을 느껴 시원하다라고 말한다. 물론 물(水)은 담는 그릇에 따라서 그

형태를 바꾼다. 이것은 액체이기 때문이라고 하면 그만이지만은 우리들은 이 물과 같이 담담하고 허심탐회하며 위의 참智識으로 能小能大 할 수 있어야 하며 臨機念變할 줄 알아야함을 教示한다고 보겠다. 또한 水(물)는 山과 같이 존재하여 山에 舟이 우거지면 우리에게 生命水를 공급해 주고 농업, 공업의 용수로도 사용하나 이 治水, 用水를 과학적으로 적절하게 해야함은 당연하다. 냇물이 강물이 되고 강물이 모여서 바닷물이 되니 이도 우리 인간도 모여서 서로 和合하고 融和하여各自의 才質을 아낌없이 기쁨으로 發揮하여 各守本職하여 그 단체와 사회에 이바지해야 함은 이의 물의 合流에서 배워야 하겠다. 그 물이 썩고 오염되면 쓸모가 없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한사람 한사람이 절대로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서는 안된다. 일반적으로 불이 나면 물로 끈다. 火氣(불)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水(물)가 있어서 災難을 예방한다. 火氣는 炎上하니 外向의이고 剛한 것이며 에너지의 원천이라고 하겠다. 寒冷의 冬節에 이 火氣가 없다면, 즉 煙房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行動에도 体質에서도 火氣가 많으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行動의 過激이나 모든 일에 急進의 되기 쉽다. 火(불)는 열과 광명이 있다. 우리들은 범사에 热意를 가져야 하고 热中할 수 있는 사람, 自己의 직무에 專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이런 사람이 진실로 幸福한 사람이라고 하고 싶다. 우리들 신체에 심장(火), 신장(水)이 각각 적절하게 조화롭게 작용할 때 건강을 유지하겠다. 물론 다른 조건이 있지만 여기서는 水火의 문제이니 두 가지 장기로 극한하여 예를 들어 본 것이다. 다시 말하면 水一火의 調和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하늘의 日月(火水)이 조화되고 땅에도 水火가 조화되어 水災니 火災, 地雲等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으나 天變地異의 大變化는 人力으로 막기 어렵다. 다만 水火相克하는 원리와 相生相合하는 원리를 잘 알고 예방에 힘써야 함은 당연하나 물불의 審判이니 하는 宗教의인 말도 우리들은 無心치 말아야 하겠다. 如何한 患難도 克服

할 수 있는 과학과 기술의 能力を 기르자. 특히 原子力發電에서는 事故의 予防이 最上의 至上命令이다. 원자로도 内部 格納容器内에서도 冷却水(물)－감속재－핵연료(불)의 組合이고 水火의 調和를 유지함이 원자력발전소의 安全운전인 것이다. 원자로내의 熱水力学은 따라서 대단히 重要한 학문과 기술임을 알 수 있고 어떠한 事故도 發生되지 않게 思患은 予防이 첫째임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이러기 위해서도 각자의 克己, 盡己之心이 必要하며 안일 무사의 사고 방식은 禁物이며 原子力發電에 関係되는 모든 人材들은 衆知를 모으고 和合 協同하여 異身同體가 되어 安全운전 無事故가 되게 建設→운전 →폐기 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진 물불(水火)의 지혜와 能力を 發揮하여 길이 後孫에게까지 빛내도록하자.

正音과 물 불字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잘 아는 訓民正音은 初聲十七字, 中聲十一字로 합계 28字이니 하늘의 28宿에 해당하는 数字이다. 28宿(宿)는 古代 우리나라에서 使用해온 周天恒星의 28 星座를 말함이고 天球360度에 28星을 東西南北으로 配置하여 各方位에 7星(宿)씩 配列되어 있으며 正易에서도 28宿運氣圖라고 하여 軫翼張星柳鬼井(7星南方)의 順序로 적혀 있으며 특히 世宗大王 28年에 正音을 반포하신 것도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奇異한 감이 들고 近來흔히 「한글」이라고 함은 本制字의 뜻에 어긋난 말이며 우리는 바른말인 「正音」이라고 함이 좋을 것이며 世宗大王의 뜻에도 合致된다고 본다. 그뿐만 아니라 흔히 正音은 科学的이라 하여 世界的으로 가장 우수한 言語라고들 하지만 實로 그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은 얼마나 될지? 부끄럽고 寒心스러울 때가 많다. 여기서 筆者は 民族主体意識을 疑心한다. 꼬부랑－글자 꼬부랑－말에만, 꼬부랑글－冊에만 置重하면 내것을 忘却하기 쉽고 몸은 단군님의 혈통을 이어받고 마음과 정신은 남의 것에 의존한

다면 우리의近代化는 砂上樓閣이된다. 모름지기 우리의 고유전통정신을 더욱 빛내 가면서 남의 것도 우리의 것으로 同化－消化시켜 우리의 피와 살이 되어야함은 당연중에 당연이기 때문에 특히 현대 과학과 기술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28字正音에서 이글에 해당되는 「물」과 「불」에 대해서만 천박한 지식으로 나마 약간 풀이해볼까 한다. 勿論 初聲 十七字에서 「△」 및 「○」字는 사용하지 않으니 全体로는 26字요 初聲15音과 中聲11音을 組合하여 사용함은 주지의 사실이며 초성 15음中에서도 「물」「불」字만을 여기서는 생각나는대로 풀이함에 독자여러분의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물」자는 「ㅁ」과 「ㅡ」 및 「ㄹ」로 되어 있다. 물론 「ㅌ」는 正音에서 「ㅎ」인것이고 ㅁ자는 「ㄴ」과 「ㄱ」의 조합, ㄴ은 밑에서 받고 ㄱ은 위에서 드리워짐이니 위의 로고스 성령 말씀을 받는 형태니 우리의 양손을 내어민 상태가 ㄴ이고 불도 저의 끝모양 또는 팽이의 끝 모양의 상징이다. ㅁ은 앞서 말한 五行에서 「土」에 해당하여 땅기운이라 하고 인체로는 입「脣」이 된다. 土는 이 지구위에서 生長成藏하는 만물의 본바탕이 되고 또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땅이라고 해도 좋다. 인간은 양다리로, 동물은 대체로 네 다리로 땅(土)을 딛고 서서 걸어 다니지 않는가. 이때 머리는 하늘을 향함이니 이는 하늘의 기운, 로고스(진리)를 받자고 하는 상징이며 인간은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고 살아야 함도 大攝理임을 깨달아야 하겠다. 동물들은 땅의 기운만을 받으니 주야로 먹는 것만 밟히고 먹다가 인간을 위해서 희생한다. 따라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인 것을 확정시켜 준다.

大自然의 모든 植物과 食物도 이땅에 뿌리를 내려서 生長成藏하니 「土」는 그 근본임을 말할 나위도 없다. 이와 같은 원리로 인간은 입으로 모든 飲食物을 摄取하게 되니 영양분의 Intake(입구)는 입구(口)인 것이며 따라서 토(土)를 口로 해석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일반적으로 모든 숫자나 글자나 모두 「•」, 점에서 시작하여 이 점(•)에서 ○도 되고 口도

된다. 이 • 이 中聲十一字의 始初인것도 당연 하리라고 하겠으며 물론 「•」을 「।」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다. 「•」은 물(水)에 해당하고 이는 ○으로 확대하여 ○도 水의 상징이 되며 天政은 開子라고 하여「子」에서 始作한다고 하였으니 十二支中(子丑寅卯……)子가 먼저 나오며 또한 天一生壬水 라하여 수의 最初는 1(一)이니 우주만물의 生命의 기원은 역시 물이 아닌가 생각한다. 하늘에는 天一生壬水, 地一生子水라고 하니 땅에서도 子水가 먼저 생겼다는 말이 되겠다. 또한 「•」은 太極面을 表現했다고 보며「○」은 無極面을 表現했다고 大王께서는 보셨을 것으로 생각하며 太極同說의 「無極이 太極이니……」하고 正易에는 「舉便無極이니 十이니라」「十便是太極이니 一이니라」고 하셨다. 결국 「•」은 수로는 一(1)이고 太極이고 「하나」의 진리에는 통체가 포함되어 「하나님」이라고까지 불리우게 되며 하나(1) 둘(2)……하여 열(十, 10)로 그치며 「열린다」는 뜻도 있으며 손가락으로도 하나가 염지손가락으로 으뜸이며 이 자리에서 또 열(十, 10)하게 됨은 하나에서 始, 열에서 終, 이 終에서 다시 하나로 始作하니 우리의 哲學은 하나의 철학 「열철학」 새 시대를 여는 철학이 있음을 알아야 하겠다. 새 시대 새 역사, 새 우주와 세계(世界)를 열 지도자와 나라도 “우리 나라에서”라는 점도 여기서 철학 역경을 통하여 암시 시사하여 둔다.

「-」는 「土」즉 땅의 平坦함과 地平線을 의미하고 땅과 같이 조화되고 公平균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며 산—알카리도 中和되는 성분이 있고 모든 것을 包容하고 기르고 받드는 뜻도 있다. 즉 天道와 対峙의으로 地道를 일컬음이며 이 땅에 山도 솟고 물도 있고 강물도 있어서 公平하고 조화롭게 해 주고 있으며 人間이 生活할수 있는 Baseline(터전)이 땅이고 하늘에는 子水가 있고 땅에는 丑土가 있게 되니 子丑寅卯……로 12支의 順序가 된다.

위의 「•」과 「-」을 組合한 것이 「-」이니 · 의 天과 —의 땅이 만났음이요, 하늘에 光明, 로 고스가 땅으로 들어 간다는 형상이다. 이는 周

易 明夷卦(地火명이괘)에 「初登干天하고 後入干地」이라고 한 뜻과 같다. 「물」자에도 丁(一)자에서 물은 올라갔다가(수증기로) 다시 땅으로 내려온다고 하겠고 물은 「水性下降」이니 땅 속으로 스며 들어 간다는 뜻도 된다. 이 물이 다시 地下水로 되어 우리들에게 用木가 되지 않는가.

「물」자 마지막인 「ㄹ」字는 「ㄴ」위에 「그」을 붙인 것이 되고 「불」字에도 이 「ㄹ」이 있음은 共通이다. ㄴ은 舌音中의 하나며 ㄷ, ㅌ으로 되고 五行의 火 五聲의 「이」가 됨은 앞서 말한 바와 같고 우리들의 혀(舌)가 덜덜 해서 ㄹ 발음이 되니 이는 진동 동요를 표시할 수 있으며 랄라리, 혼들어라, 들린다, 멀린다, 등에 ㄹ자가 붙어 있음을 유의해야 하겠다.

다음은 「불」자를 살펴보자. 「ㅂ」자는 「ㅁ」즉 물자에서 설명된 「ㅁ」에서 ↑↑와 같이 위로 치솟으면 「ㅂ」이되고 불과 같이 상승하는 모양이 되니 ㅁ에서 ㅂ으로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조적으로 위로가 아니고 옆으로 퍼지면 ㅁ에서 ←→ ㅍ자가 된다. 즉 좌우로 펼친 것이다.

우리말은 최초 ㅁ에서 시작된다. 즉 「맘마」라고 하며 ㅁ→ㅂ은 빠빠로 통하여 같은 음식의 뜻으로서 아기들이 말을 배울 때 가장 최초로 자동적으로 나오는 말이 된다. 이 「맘마」는 또한 「엄마」와도 같은 공통된 뜻이 있고 모두 「ㅁ」자가 들어 있지 않은가. ㅁ은 결국 엄마의 자비자애심의 상징이고 실천자이며 땅과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음으로 하늘이 乾이면 땅은 坤이고, 乾交, 坤母라고 하게 되며 嚴父 慈母라고 칭하는 것이며 결국 빠빠도 음식. 파파(papa). 맘마(mam-ma)라고 서양아기들은 부르고 있으니 이는 세계공통언어라고 하겠으며 天語라고 하겠다. 빠빠는 또 「아빠」와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우리말에 「마신다」 「먹다」 등도 ㅁ이 있다. 또한 「밥」, 「범벅」, 「벌린다」, 「베푼다」 등에도 「ㅂ」이 있으니 음식물에 대해서도 ㅁ과 같이 ㅂ이 있음은 재미있는 말이라고 하겠으며 「벌린다」 즉 위나 옆으로 벌린다, 「발전한다」(發展, 發電), 사업

을 벌린다 하고 확장한다는 뜻도 있음을 알 수 있고 꽃이 만발이라고 할 때의 발자에도 역시 由이 있음을 注目하게 된다. 위에서 「엄마」라는 말은 「엄」 소리가 가장 먼저 나오게 됨도 五行音中에서 「음」의 「口」이 토(土)인 기본음이 됨은 땅의 토기가 기본인 것과 같으며 다른 음을 낼 때의 시초의 음(音)인 것을 알 수 있고 말을 잠깐 쉬고 연습하는 접속음이 되기도 한다.

五聲인 宮商角徵羽에서 「口」은 宮聲에 해당하고 四時로는 土旺節, 五藏에는 脾, 五常으로는 信이 되어 人倫五常에서 가장 基本이 되는 信이 됨은 「土」「口」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 信은 人間으로서 가장 중요한 윤리 도덕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 가정, 직장, 기업체, 발전소를 막론하고 「信」이 있어야 함은 古今과 東西의 区分 区別이 없다. 「불」자의 「口」의 기본이 「口」인 것은 이제 잘 알게 되었을 것이고 이 「口」의 중요성도 증명이 되었다. 불(火)자 자체는 象形文字로 해석한다면 그 形狀이  →

 → 火 → 火자가 된 것 같다. 물론 반대로 水자는  →  → 水자로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위의 그림과 같이 불은 위로 上昇함은 상식이고 「火氣는 炎上」한다는 正易의 말씀과 같고反过来 「水性은 就下한다」로 물은 밑으로 내려가게 마련이나 열로 인해서 上昇하기도 하고 냉각시켜서 下降하게도 함은 너무나 잘 알려진 상식이다.

물불(水火)의 作用

위에서 다소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은 물불을 떠나서 생존 할 수 없다. 古石器時代에서는 돌과 돌을 마찰시켜서 불을 만들었다고 한다. 現代社會에서 에너지 문제가 심각함은 결국 이 불(火)과 직결되는 것이다. 인체 五臟에서 수화는 신장(水)과 심장(火)이니 물(水) 불(火)은

독자적으로만은 유기적 기능을 할 수 없다. 각각의 기운이 충실하여 水火 즉 신장-심장의 상호作用이 調和롭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건강도 유지된다고 보겠다. 물론 기타 여러 장기와 기관조직이 완전해야 함은 당연하고 여기서는 다만 水火에 대한 명제로 풀이하고 있을 따름인 것을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 근본적으로는 水氣는 下降, 火氣는 上昇한다 하지만 인체조직 기능으로는 서로가 보완하고 수수작용을 하여 平衡을 이루고 있으나 만약 이 균형에서 火氣가 過大 과다 하다면 고혈압이나 비대증이나하고 신체의 병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나 이도 근본은 각자의 체질적이라고도 하겠다. 우리 주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로 가정에서 밥을 지을 때도 물불의 作用으로 음식 즉 빠빠, 맘마도 되는 것이고 현재 과학기술의 집합체이며 첨단이라고 하는 원자력발전도 요는 火力發電所에서 보일러의 물을 化石연료 및 유류등으로 끓여서 그 수증기로 터빈(Turbine)을 돌리고 이 Turbine과 직결된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發電하는 것이고 한편 原子力發電所에서의 發電은 격납용기(Containment vessel) 안의 爐心(Core)이 있고 이 노심에는 핵연료가 있으며 이 핵연료는 輕水나 重水로 둘러 쌓이게 해놓은 것이고 핵반응, 연쇄반응으로 생긴 막대한 열(火)로 주위의 물을 가열 또는 끓게 하여 생긴 수증기를 모아서 터빈을 돌리고 발전기를 돌려서 발생시킨 電氣가 核電力, 核電氣가 되며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있음도 우리들 모두에게 周知된 사실이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根本原理에서 火力이든 原子力이든 간에 發電의 기본원리는 「물불」, 「水火」의 作用인 것만은 틀림없다. 불(火)은 热, 빛(光), 温度등을 통칭하고 있음도 哲学의 作用으로는 大端히 重要한 意味가 된다.

위의 原子爐의 例에서 만일 물-불(水-熱)과의 조화가 깨지면 우리들은 일종의 사고로 본다. 물론 여러 가지 事故故障이 있겠지만 热-水力学的 事故가 가장 큰 문제의 하나인 것이고 따라서 우리들은 恒時 물불(水火)의 調和로운 운전 유지가 絶對至上 目標고 課業의 하나인 것이니

이에 徒事하는 모든 学者 - 技術者, 行政人, 官吏들은 오로지 象智를 모으고 大同和合 하여야 하며 象和인 和識 - 技術만으로는 안된다. 간단히 말하면 Computer만으로는 안된다는 비유이며 이 컴퓨터도 사람이 조작해야 하기 때문에 終局에서 한사람 한사람의 사람 문제인 것에 神經을 써야 하며 焦点을 여기에 맞추어 놓고 모든 일을始作하고 수행해야 함은 萬古에 不變順序일 것이다.

위에서 불(火)은 热과 빛을 가질 때가 많으나 열이 없는 「불」도 있다. 즉 반딧불(螢光)도 있고 燐光, 閃光도 있으니 방사선측정기의 검출기로서 热螢光線量計, 燐光線量計, 閃光檢出器 등이 있지 않은가, 이때의 發光도 우리말의「불」에 해당한다. 이는 방사선에 被曝되어 생긴 피부의 장해에서 “Radiation burn”이라는 용어에서도 잘 나타난다. 직역하면 「방사선 화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화재 때 받은 화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여기의 “burn”은 일반적으로 불로 탄다는 의미이지만 방사선피폭에서는 열로 탄다고는 할 수 없고 방사선피폭으로 피부의 세포가 죽어서 탄화됨에 같이 細胞死로 인해 검은 갈색으로 나타난다.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以外에도 人工的으로 우리들은 물(H_2O)을 만들고 이를 경수라고 하면 중수(D_2O)도 있고 이들이 모두 액체이며 이 액체는 금속을 热(火)로 加熱하여 만들어 쓴다.

고속증식로에서 액체-Na loop는 가장 중요한 냉각제, 감속제가 되며 현재 사용중인 경우, 중수형 원자로 및 원자력발전소의 물(水)과 같은 역할을 할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물과 불(水火)은 相互調和, 相生되어야 하고 이렇게 되도록 우리들은 힘쓰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相克도 있다. 즉 水克火가 있고, 「土極生水, 水極生火, 火極生金, 金極生木, 木極生土, 土而生火」라고 正易에 나와 있다. 이는 우리哲学에서 五行의 相生(土生金, 金生水, 水生木, 木生火, 火生土)과 相克中 여기서는 亦是 水火만을 따지고 있는 것이나 相生을 利用할 때에 相克을 오히려 利用할 때를 잘 골라야 하겠으며 모

든 과학-기술 즉 기계 기구의 제작 운전등에 적용되는 근본원리임을 깨달아야 하겠다.

물불과 감리(坎離)

우리나라의 상징이고 우리民族의 상징인 太極旗를 보자. 中央에 太極(一太極)이 있어서 「太極而生 両儀」로 陰陽(十, 一)이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天玄地黃(天字文)으로 하늘은 검고 (아폴로 우주인이 이미 하늘은 검다고 증명했다) 땅은 누르다는 표현인데 다만 맑은 하늘을 푸른색으로 나타냈을 따름이며 양모서리에 乾坤과 次離가 있다 乾은 天, 坤는 地 또는 乾交, 坤女도 되나 坎離(封)는 二二이며 하늘의 「달」에 해당하고 離封은 三三로 「해」에 해당한다. 즉 감리는 天上의 日月인 것이다. 이 日月의 變化로 우리의 地球를 관점으로 하여 24절후도 생기고 (우리나라 위주) 농사도 지으며 陽曆 陰曆하고 있지 않는가. 周易(易, 書, 詩三經中)의 易字는 日月의 變化를 나타내는 日月字의 上下조합인 것이다. 위의 감폐는 달, 水에 해당하고 離폐는 해, 火에 해당 한다. 감폐는 陽효(父)가 하나 중앙에 있고 음효가 둘로서 양효를 둘러싸고 있어 表面은 부드러워서 慈母와도 같이 잘反射하고 있으나 陰中陽, 陽中陰으로 陰안에도 陽효가 있어 正易에서도 太陰은 ……一水之魄四金之魄……」이라고 적혀있으며 달(月)인 감은—水로 부드러움과 四金으로 내부는 金氣가 있음을 표현하며 여기서 인간도 죽어서 魂魄(혼魄)이 남는다고 하며 오늘 어찌한 쇼크로 「흔났다」 아버지에게 「흔났다」는 등의 말을 쓴다. 또한 리폐는 해, 日, 太陽이니 中央의 음효하나를 바깥 양효가 둘이 둘러싸고 있으니 太陽의 표면은 작열하는 열을 D-D, D-T 반응으로 즉 핵융합반응으로 그 열을 발산하며 인류도 장차 핵융합반응로를 이용하여 發電할 계획이 아닌가, 正易에서는 「太陽은……七火之氣 八木之體……」라고 하셨으니 이 氣体(수소, 중수소, 삼중수소)임이 틀림없다.

인간 가정에서는 감폐는 中男, 리폐는 中女로 表現되고 감리 두폐는 결국 日月, 水火, 中男

수 필

中女등으로 相互調和 生生變化하여 순환하고 있고 우리들 人体로는 감은 귀(耳), 리는 눈(目)에 해당하며, 사람이면 누구나 耳目이聰明한 사람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여 이렇게 되기 위하여 배우고 갈고 닦아야 하겠다. 요즈음 시청각(視聽覺) 교육이 성행한다. 이는 한마디로「보고 들어서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뜻으로 필자는 풀이한다.

視는 눈인 리(火, 日)가 되고 聽은 귀, 感(水, 月)인 것이다. 따라서 東洋사람 특히 우리들은 聽이 為主인 것 같다. 「말 잘 들어라」「좀 들어보자」 그러나 百聞은 不如一見이라 하여 실제 눈으로 보아야 하겠다는 것은 「맛본다」 위의 글과 같이 「들어본다」「가 본다」「맞아 본다」「시험 본다」「마셔 본다」 등등 역시 視에도 置重하고 있으니 우리들의 말과 先祖들의 예지를 볼 수 있다. 西洋사람들은 対話에서 알아 들었다는 간단한 말에 “Yes, I see”라고 한다. 말을 들으면서 왜 See, 본다고 할까? 과학적이 아니다. 물론 성서에는 귀있는 者는 들을지어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富者가 하나님 나라에……」로 되어 있어 이 바늘귀는 또한 「바늘눈」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부터 부모님들께서 흔히 「바늘눈」이 어둡다는 말씀을 들어왔다. 여하튼 귀는 청각이며 눈은 시각이다. 시, 청으로 깨달은 것은 역시 乾인 머리인 것이다. 乾天을 본받아 창조된 인간의 「머리」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서게 했으니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서 실천은 우리의 육체 사지로 하라는 것이 우리의 哲學이다. 물불을 陰陽으로 풀이할 때 極寒 極暑도 음양에 해당하니 周易 正易의 理致에 依한 日月(火水)의一大變化 以後에는 이 極寒과 極暑가 없을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음양의 조화, 한서의 조화인 것이니 陶淵明도 36宮이 都是春이라고 說은 詩(귀거래詩)가 있고 正易에는 金火三頌에 「北窓清風이 暢和淵明 無絃琴하니 東山第一 三八峯에 次第登臨하여……」라고 說은 讀頌글이 있다 앞으로 닥쳐올 龍華世界요 十數世界를 讀美

하신 金一夫先生님의 글인 것이다. 흔히 「물불의 審判」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 周易에도 여러卦에서 終來을 表示하고 台作한다는 말씀이 있다. 乾卦 上九와 上六에서 「亢龍有悔는 窮之災也라」, 「龍戰于野는 其道窮也라」고 함은 一種의 終來의 災難 患難이 있음을 後世人인 우리들에게 알리고 있지 않는가. 周易의 既濟卦, 未濟卦(水火기재, 火水미재)는 64卦中 마지막괘이다. 기재괘에는 「初吉終亂」이라고 하였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結局은 無事하지 못하니 심판主의 심판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말로 해석된다.

미재괘도 역시 물불의 심판에서 오단장을 못 건너는 것이니 온 世界 人類에게 警鐘을 聖賢들께서는 울리고 계시지 않는가. 언젠가 닥쳐올지도 모르는 一大 変動에 恒時 우리는 깨여 있어야 하겠고 窮理條身하여 믿음(信)으로 물불의 심판에서 無事히 希望峯에 오르자. 감괘는 北方이고 리괘는 南方인 것이다. 이는 앞서 水는 ○, 北, 冬이되고 리괘는 火, 丂 또는 ☲, 夏이니 水火 감리의變化는 지구 지축의 변화와도 같다. 실제로 자전축과 공전축이 23度 27分 정도의 差가 日月(火水)의變化로 大變動을 하여 그 差가 없어진다는 가설도 있을 수 있다. 이때가 바로 終末이고 始作이 아니겠는가. 이 始作 時에는 良이 為主로 됨을 周易說卦에서는 「終万物始万物 莫盛手良」이라는 글로서 証明해 주고 있으니 꿈만 같은 말인가? 무엇보다도 언젠가 닥칠 大災殃에는 水火(물불)인 것 같으니 이 災難克服을 어떻게 해서 福緣을 누릴 것인가는 지구상의 모든 人類의 急하고도 緊急한 研究과제라고 본다. 坊坊曲曲의 기도소리 높이 울리고 說教 說法소리 더욱 차랑 차량하다. 아무리 좋은 말 좋은 藥을 써도 無效인 사람이 되어서는 끝장이다. 聖賢의 말씀에 冷笑하고 馬耳東風이며 牛耳續經이 되지 말지어다. 筆者は 이 말을 하고자 하고 많은 제목에서 과학-철학-종교관으로 水(물) 火(불)의 제목을 스스로 택하였음을 적어 둔다.

-끝-